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팔 걷어

조경규 장관, 정읍 페스티벌 참여 “정책 개발·지원 강화할 것”... 체험 행사·특산물 장터 진행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기 위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5일부터 이틀간 정읍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행사 첫날에 참여해 생태관광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전국 20곳의 생태관광 지역 주민 100여명이 직접 홍보하며, 다양한 체험 행사와 특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20곳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20곳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용계마을이 2014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객 3배, 소득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생태관광 페스티벌에서 생태관광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